



3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북서 지역구 의원 배출 호소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음 1월 28일) 제24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편집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취재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위와 동일

▲ 접수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주)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와 현대자산운용(주) 혁신도시 본사 개점식이 20일 전주시 만성동 오케이타워에서 열렸다.

무궁화신탁·현대자산운용, 전북 혁신도시에 ‘등지’

전북 제3금융지 지정 인프라 ‘속속’

지난해 12월 30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약 후

50여일 만에 사무실 열어

도민 우대 신규 인력 채용

부동산신탁업 전문 선두권 신탁사인 무궁화신탁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전북에 사무실을 열면서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전략사업 부문 본사 기능을, 현대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담조직을 본사 형태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도내 거주자를 우대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주)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와 현대자산운용(주) 혁신도시 본사 개점식이 20일 전주시 만성동 오케이타워에서 열렸다.

개점식에는 이용만 무궁화신탁 회장, 오창석 부회장, 최병길 부회장, 원석희

전략사업 대표, 장부연 현대자산운용 사장 등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 회 의장,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 등 내외빈도 참석해 전북혁신도시 금융기관 개점을 축하했다.

무궁화신탁 이용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와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개설로 전북국제금융센터, 호텔·컨벤션 등 금융타운 조성 협력을 통해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과 함께 기숙사 등 복지주택 마련이나 국민복지 차원의 주택건설 신탁, 자산운용사업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만금 개발은 제3 금융중심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제3중심지를 향한 의지

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SSBT, BNY Mellon, SK증권,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까지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전북 금융생태계 모형이 조성되고 있다”며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신속히 추진해 금융기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30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50여 일 만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전북 금융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돼 28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부동산신탁업 전문 선두권 신탁사로서 18.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연평균성장률은 36.1%다.

현대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돼 6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로서 2019년 중 9.3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연평균성장률은 23.9%이다.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은 앞으로 업무에 필요한 금융인력을 전북에 거주 중인 취업 예정자를 우대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유치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금융 관련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전북에서 금융 전문인력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은 지점이 아닌 본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이전해 의미가 더 크고 금융운용본부와 협업을 통해 자산운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전북도, 5월 14일까지

재해취약지역 조사 등

전북도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울여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전대비 기간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맞춤형 기상안내 문자와 CCTV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정확한 현

장 발착형 상황관리 체계도 확립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장수군 장계면 장계천 둔치 주차장에 CCTV 설치와 신속알림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문제가 되어왔던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행동요령 등을 도민에게 송출할 수 있는 예·경보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시·군 담당자 재난역량 강화 교육·간담회를 통해 비상 단계별 상황관리 발전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내서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 발생

대구 여행한 20대 남성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대구 동성

로 등을 여행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9일부터 기침과 가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신속한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